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유가 급락과 러시아 경제
국내 철강산업 동향과 코로나19의 영향

북한포커스

북한 최고인민회의 주요 내용 분석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유가 급락과 러시아 경제	1
국내 철강산업 동향과 코로나19의 영향	4

북한포커스

북한 최고인민회의 주요 내용 분석	7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10
--------------------	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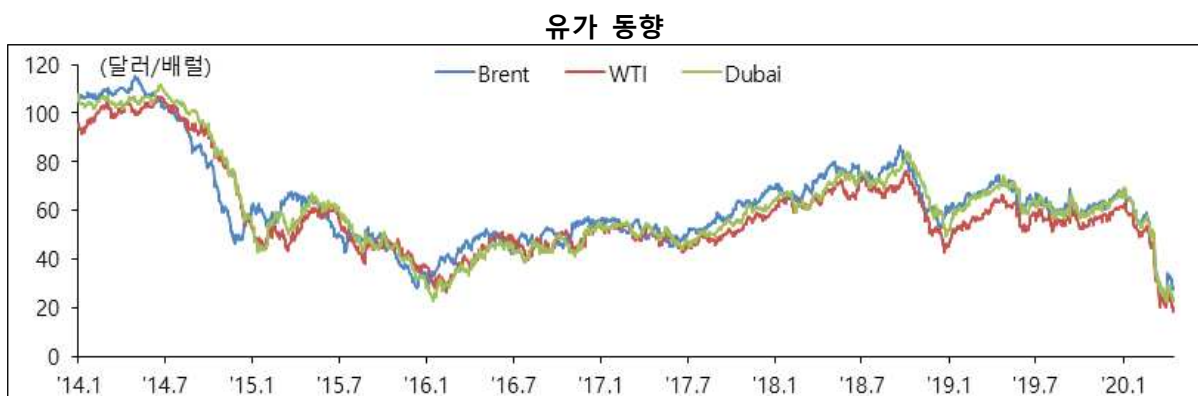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유가 급락과 러시아 경제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강명구 (mgk101@kdb.co.kr)

- ◆ '20년 러시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(pandemic) 및 원유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△5.5% 성장 전망
- ◆ 주가 급락 및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자 러시아 정부는 외환보유액 및 국민복지기금(NW) 활용, 재난기금 조성 등을 통해 경기 악화 방지 노력 중

□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'20년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(-) 성장 전망

- 4.12일 OPEC+* 회의에서 970만배럴/일 감축 합의에도 수요 감소 우려로 유가 급락
 - * +는 러시아, 아제르바이잔, 바레인, 브루나이, 카자흐스탄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오만, 남수단, 수단 등 OPEC 외 주요 10개 산유국
 -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간 원유 감축안에 대한 시각차로 감축 협상 난항
 - ※ 유가 추이(달러/배럴, WTI 기준) : 61.18(1.2일) → 50.11(2.3일) → 31.13(3.9일) → 13.78(4.22일)
 - 단기적으로, 러시아는 유럽과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송유관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급 문제에 따르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
 - '19년 러시아의 CIS국가 이외에 대한 원유 수출가는 평균 63.01달러/배럴로 WTI 평균가인 57.03/배럴보다 6달러/배럴 높은 수준



자료 : Bloomberg

- 4.14일 IMF 발표에 의하면, '2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, '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*으로 하락 전망
 - *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유가가 급락한 1998년 △5.3%, '09년 △7.8%로 급락

- '2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$\Delta 5.5\%$ 로 유가 급락 이전 발표치인 '20.1월 1.9%에서 7.4%p 큰 폭 하락
- 러시아 경기 하강은 4.12일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와 재고량 급증 등 수급불균형 심화에 따른 유가 급락이 주요 원인
 -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자원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아 유가 등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
 - '19년 러시아 에너지자원* 수출의 경제기여도는 총수출의 56.3%, GDP의 14.5% 차지
 - * 원유 + 석유제품 + 천연가스(PNG 및 LNG)
 - 특히, 단기적으로는 장기계약물량 판매로 영향이 크지 않으나, 현재의 유가가 러시아 균형재정유가*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재정수지 악화 전망
 - *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이 재정적자를 피하고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는 유가 수준으로, '20년 러시아 균형재정유가는 42.5달러/배럴
 - 코로나19로 인해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는 '20년말에는 860만명 정도의 실업이 발생할 전망(RBC통신 3.23일자,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 엘레나 디보바)
 -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.19일 6천명이 증가하는 등 4.20일 기준 총 4.7만명을 넘어서면서, 확진자가 집중된 모스크바시는 전 시민 자가격리 조치와 차량 통행증 제도 실시 등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둔화

□ 유가 급락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러시아 주식 및 환율시장 불안 확대

-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'20년 연초 달러당 61루블까지 안정화되었으나, 코로나19 팬데믹과 감산 합의 불발로 급격히 상승
 - 환율은 3.11일 팬데믹 선언으로 80.9루블/달러까지 상승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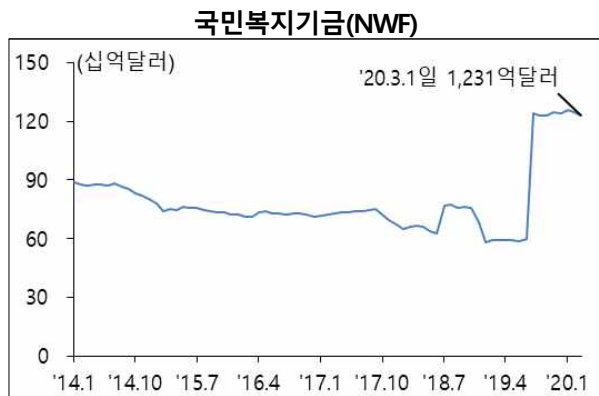
- 주가(RTS)는 '20년 연초에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는 등 50달러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여 1,646.6까지 상승하였으나, 코로나19 팬데믹과 감산 합의 불발로 급락

□ 러시아 정부는 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 악화 방지 노력 중

- 러시아 정부는 3.17일 '경제발전 지속을 위한 방안(On Measure to Ensure Sustaina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)'을 발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
 - 정부는 '경제발전 지속을 위한 방안'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 유보예산(Budget Headroom)을 3천억루블(약 40억달러) 투입
 - (통화정책)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화, 기준이자율을 6%로 고정 등
 - (산업정책) 기업들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기간 연장, 시중은행 기업대출 조건 완화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 시행
 - (고용정책) 노동자들 의무 격리시 병가로 처리하는 등 소득 보전
- 러시아 정부는 그간 축적해 놓은 외환보유액, 국민복지기금(National Wealth Fund)* 활용**과 재난기금 조성 등을 통해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한 경기 악화 재현 방지 노력 중
 - * '08.2월 조성 시작한 기금. 원유와 가스 수출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한 기금으로 유가 하락시 재정지원 등에 사용
 - ** 외환보유액은 4.10일 5,649억달러(세계 4위), 국민복지기금은 3.1일 1,231억달러
 - 국민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국민연금, 공무원 급여, 각종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경기 활성화 추진



자료 : 러시아 중앙은행



자료 : 러시아 재무부

국내 철강산업 동향과 코로나19의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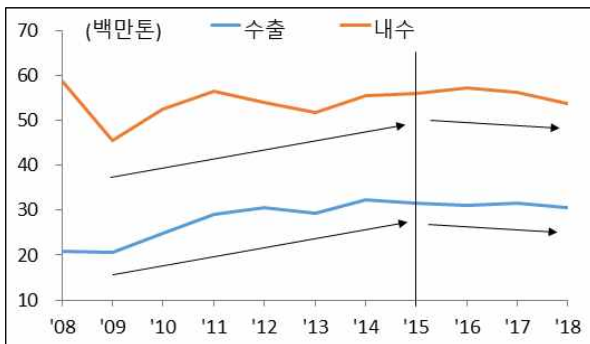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이동이 (leejjang04@kdb.co.kr)

- ◆ 철강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초 소재산업이며, '10년대 후반부터 점차 성장정체 국면에 진입
- ◆ 코로나19 확산으로 철강제품의 내수 및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, 향후 수요정체 및 공급 과잉 영향으로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◆ 한편,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기능성 제품 수요의 등장이 예상되며, 이는 철강산업의 정체 국면을 타개할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
□ 철강산업은 기초 소재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이며,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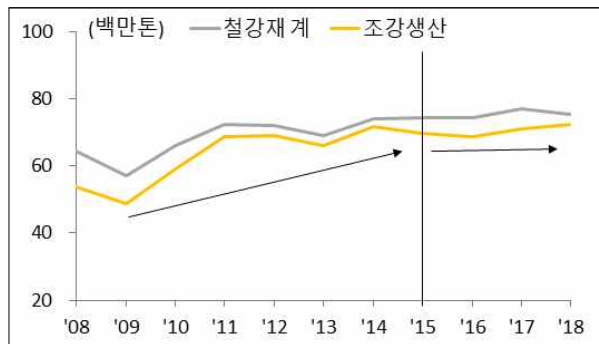
- 철강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 철강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동차, 조선, 건설 등 주요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음
 - 철강 제품별로 살펴보면, 판재류 제품의 수요는 자동차 생산 및 선박 건조량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, 봉형강류 제품은 주로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
- 국내 철강산업은 '10년대 들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, '1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정체상태에 진입
 - '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힘입은 철강수요 증가 등으로 '10년대 초반부터 꾸준한 성장세 시현
 - '1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'China Effect' 소멸 등으로 수요와 생산이 모두 정체국면에 진입하며 철강산업 성장세 둔화

철강 수요 추이



자료 : 한국철강협회

철강 생산 추이



자료 : 한국철강협회

□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철강수요 감소 및 수출타격 우려

-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비중이 크고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, 전방산업의 경기위축은 국내 철강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초래
 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, 조선 등의 산업 경기위축으로 인해, 철강산업에도 내수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
- 최근 유럽·미국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 가동중단 및 경기 위축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
 - '20.1/4분기 중 철강재 수출은 강관제품(△10.1%)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.9% 감소
- 또한,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으로 중국 내 철강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철강가격도 하락함에 따라, 가격경쟁력이 열위한 국내 업체의 對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상존
 - 중국은 철강재 수출비중 1위 국가('19년 총수출의 13.5%)로서, 對중국 수출감소 현실화시 국내 업체의 수출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음
 - 또한, 중국의 철강재고 증가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유입 증가를 통해, 국내 시장의 수급 악화 및 가격경쟁 심화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
철강제품 수요 증감 현황

(단위 : 천톤, %)

구 분	내 수			수 출		
	'19.1~2월	'20.1~2월	증감률	'19.1Q	'20.1Q	증감률
철강재 계	8,899	8,262	△7.2	7,681	7,532	△1.9
판 재 류	4,827	4,543	△5.9	6,038	5,941	△1.6
봉형강류	2,899	2,583	△10.9	761	745	△2.1
강 관	516	507	△1.7	484	435	△10.1
기 타	657	629	△4.3	398	411	3.3

주 : 수요 = 내수 + 수출이며, 내수의 경우 '20.3월 통계자료 미발표.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
 자료 : 한국철강협회

- 향후 철강산업은 수요정체, 공급과잉 등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,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기능성 제품 수요 등장은 정체국면을 타개할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음
- 철강산업은 '10년대 후반 이후 수요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,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개도국 설비확장에 따른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음
 - 수요정체기에 진입한 '15년 이후 '25년까지 10년간 글로벌 철강수요는 연평균 1.1%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*
 - 또한, '19~'21년 동안 아시아·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철강 생산능력 증가 규모는 약 81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*
 - * 포스코경영연구원('19.11월), "철강산업의 미래와 대응"
 - 이러한 가운데,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전방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, 향후 철강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
 - 한편,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경계심리 강화로, 건설용 강건재, 가전용 강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철강제품과 관련하여 항균기능을 갖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신규 수요의 등장은 철강산업이 수요정체 및 업황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, 빠른 기술연구 및 제품개발 등 국내 업체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

북한 최고인민회의 주요 내용 분석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김영희 (kbukyh@kdb.co.kr)

- ◆ 북한은 4.12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법 제정, '20년 예산 등 6개의 안건을 결정
 - 최근 '코로나19'와 장기화되는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, 「원격교육법」과 「재자원화법」 제정을 통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대응방안 마련
 - 지식형 근로자 양성과 과학자를 통한 경제·기술 개발 도모, 재자원화를 통한 원부자재 확보 등
 - '20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, 수입·지출 증가율을 각각 4.2%, 6.0%로 편성
 - 김정은 집권 이후 거래수입금(부가가치세) 및 국가기업이익금(법인세) 증가율 최저

□ 4.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*(정기국회)를 개최하고 6개의 안건을 토의·결정

*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1~2회 개최, '19.3월 선거로 선출된 제14대 의회의 3번째 회의

○ 주요 안건

- 「원격교육법」, 「재자원화법」 및 「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」 제정
- 내각의 '19년 성과 및 '20년 과제
- '19년 국가예산 결산 및 '20년 국가예산 편성
- 국무위원회, 최고인민회의, 내각 등 국가권력 기관 인사

○ 주요 참석자 : 대의원(국회의원)만 참석

- 지난해 당, 군, 정, 내각, 공장, 기업소, 협동농장 등 각계 관계자들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으나, 올해는 코로나19로 참석인원 제한

* 김정은 위원장 불참('19년에는 회의 참석하여 시정연설)

□ 「원격교육법」과 「재자원화(再資源化)법」 제정은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원부자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목적

- 「원격교육법」은 현장 노동자, 농민들에게 온라인으로 현대과학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을 실무와 이론을 병행한 지식형 근로자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며, 이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촉진에 기여

- 원격교육은 '14.8.30일 김정은 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원격교육체계 도입을 강조 하면서 전국으로 확대
- 김일성종합대학, 김책공업종합대학, 평양기계대학, 평성석탄공업대학, 교통대학, 평양의학대학, 정준택원산경제대학 등 중앙대학에 원격교육학부가 신설되었으며, 중앙기업 중심으로 원격교육체계 구축 중
 - * 북한 경제는 당 경제(당 자금을 위한 경제사업), 민수경제, 군수경제로 구분되며, 민수경제는 내각이 직접 관리하는 중앙경제(중앙예산 이용)와 지방인민위원회(도, 시, 군청)가 관리하는 지방경제(지방예산 이용)로 구분되고, 지방경제는 해당 지역주민 생활을 책임짐
- 「재자원화법」은 모든 공장·기업소·단체들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로 부족한 원료, 연료, 자재를 대체하도록 하여,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생산활동에 기여
 - 과거 재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 달성
 - *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비료 생산과정에 나오는 수십만톤의 공업 폐설물과 폐가스를 연료로 하여 시간당 백톤 이상의 증기와 1만kw 이상의 전기를 생산(연소효율 약 98%). 또한 증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시멘트와 블록 등 건설자재 생산에 활용

□ 최근 '코로나19'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'20년 예산 편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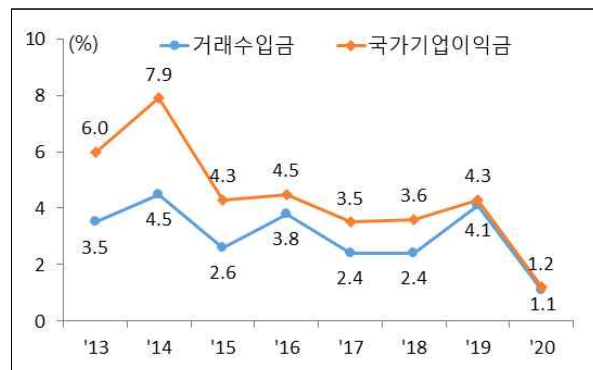
- 예산 수입·지출 증가율은 각각 4.2%, 6.0%로 전년대비 0.5%p, 0.7%p 높게 편성
- 예산 수입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(부가가치세)과 국가기업이익금(법인세) 증가율을 전년대비 각각 3.0%p, 3.1%p 낮게 편성한 것은 소비재 생산 감소와 기업활동 둔화 반영
 - * 거래수입금은 생산자재를 제외한 소비재에만, 국가기업이익금은 모든 국영기업에 부과

북한의 국가예산 수입·지출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최고인민회의의 참조

북한의 거래수입금·국가기업이익금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최고인민회의의 참조

- 어려운 대외적 환경에서도 향후 경제발전을 견인할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반면, 국가투자에 의한 대규모 건설은 축소될 전망
 - 과학부문 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0.8%p 높은 9.5%로 편성, 올해 부문별 지출에서 최고
 - 매해 별도 편성·발표했던 건설부문 예산을 미발표한 것은 금강산지구 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유보 및 연기하려는 의도로 분석
 - * 이는 지난 4.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등으로 조성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조정한 결과

'20년 경제부문 중점추진 과제

구 분	주요 과제
대 외 무역	· 원만한 무역활동을 위한 사업체계 및 방법 혁신
건 설 업	· 평양종합병원건설 등 주요 건설사업의 설비, 자재, 자금을 적기 확보하여 기일내 완공 추진
금 속 공 업	· 제철 생산공정의 과학·기술적 완비 및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· 합금철 생산기지 등을 보수·정비하여 철강재 수요 충족
화 학 공 업	· 화학공장 현대화를 통한 비료 및 화학제품 생산계획 달성 · 순천린비료공장 완공후 생산 정상화
전 력 공 업	· 보일러, 터빈발전기 성능 회복을 통한 전력생산 정상화 · 수력발전소 건설 적극 추진
석 탄 공 업	· 채탄과 운반능력을 제고하여 전력, 금속, 화학공업 등의 석탄수요 충족
철 도 운 수	· 철도 현대화에 역량 집중, 기존 수송능력 최대한 활용
경 공 업	· 원료·자재의 국산화를 통한 소비재 생산, 지방공업발전에 역량 집중
기 계 공 업	· 기계제품의 질 향상 도모, 건재의 국산화 비중 제고
농 업	· 축산기지 현대화 및 활성화, 가축 사육 전국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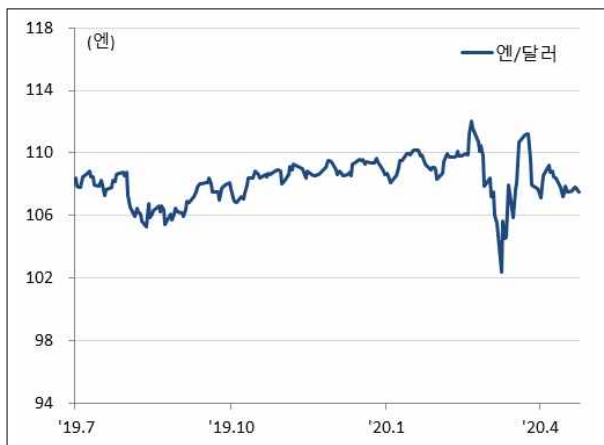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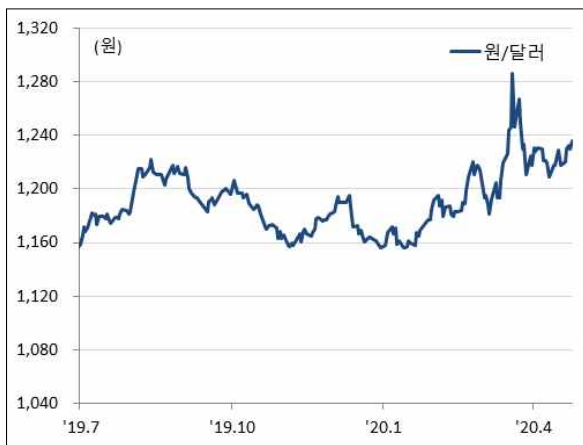
자료 : 최고인민회의 참조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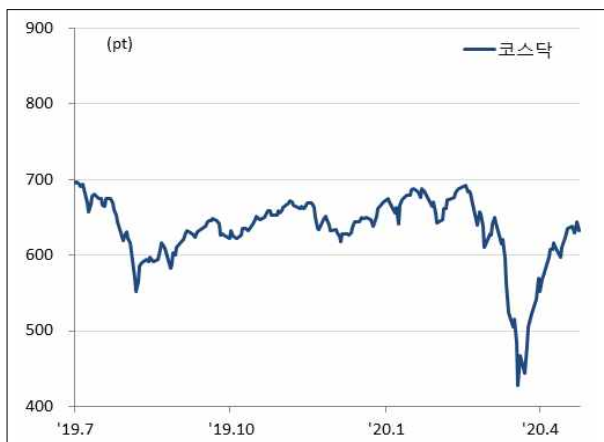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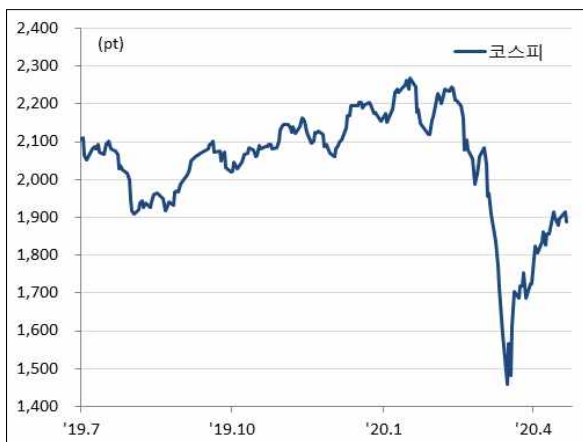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1.018% (1.2bp ↑), 신용스프레드 73.8bp (1.1bp ↓)



환 율 원/달러 1,235.5원 (17.6원 ↑), 엔/달러 107.6엔 (0.07엔 ↑)



주 가 코스피 1,889.01pt (1.33% ↓), 코스닥지수 632.96pt (0.29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, 신용스프레드와 엔/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76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